

광주전남 사립유치원 보육대란 없었다

교육청-지자체 공무원, 263개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여수 1곳 연기, 시정명령 후 6일 고발·원생 공립 재배치 일부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했는데 각서 받듯” 서명 거부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광주지회가 무기한 개학연기 등 단체 행동을 진격 철회하면서 개학일인 4일 광주·전남 250여 사립유치원이 대부분 정상 개원했다.

당초 광주지역의 '보육대란'이 크게 우려됐으나 이렇다할 마찰이나 잡음이 정상화된 반면 전남에서는 여수지역 한 사립유치원이 입학식을 미뤄 시정조치와 형사고발 등 행정적, 법적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예상치 못한 돌발 공백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 전수조사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일부 유치원에서는 “개학 연기 철회까지 선언했는데 굳이 현장 확인까지 해야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해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과 앙금을 실감케 했다.

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5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56곳, 전남 104개 사립유치원 중 103곳이 정상 개원했다.

광주지역 미개원 3개 유치원은 당초 계획대로 5일 개원할 예정이고, 전남에서는 여수 흥악에너지유치원이 개학일을 7일로 미뤄 시정조치와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3단계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당초 한유총 소속 회원 유치원 95%가 개학연기에 찬성하는 등 강성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1곳이 개학 연기, 45곳이 개원 여부를 묻는 교육청 질의에 무응답해 집단 휴업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우려됐으나 개학 전날 오후 9시께 비상 임원회의 결과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기로 결정하면서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259개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생과 교사 등 원, 통학버스 운행, 간식과 우유 납품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한 학부모는 “정부와 한유총 간 갈등으로 결국 피해보는 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이라며 “개학 연기가 철회되지 않았으면 사무실에 애를 데려가야 하나 무척 망설였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만에 하나 개학이 연기됐거나 휴원했다면 막막했다. 직장 여성이 아니라서 그나마 애를 돌볼 여력이 되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했다”며 “갈등

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이날 전문직 장학사와 행정직 공무원 수 백명을 전제 사립유치원에 파견, 자치구 공무원 등과 함께 2인1조로 등원 상황 긴급점검에 나섰다.

교직원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진행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학 현장 전수조사를 앞두고 오전 6시께 본정에 집결, 체크 리스트 등에 대한 간단한 안내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됐다.

교사 등원 여부를 일일이 점검한

뒤 유치원 원장 면담을 통해서도 개학 연기 철회 즉 정상 운영 지속 여부를 파악하고 추후 개학연기시 긴급 돌봄서비스 가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학부모 면담을 통해 정상개학이 확인된 유치원에는 정상 운영 확인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진격 철회했는데도 굳이 아이들이 첫 등교하는 날 아침부터 이렇게 좌인 다루듯 현장조사하고 각서 받아내듯 확인서 발급해 아꼈느냐”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유치원은 정상 운영 확인서

서명납입을 거부했다. 또 일부 원장들은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교육당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현장 취재진에게 거친 항의를 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큰 문제없이 정상 등원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철회 결정을 내려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밝혔다.

장회국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 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 예규와인 도입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교육청 감사도 수용하는 조건으로 유아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한유총과 뜻을 같이한 민립법개정과 운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인호·김정환 기자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닥종이 원연한 봄날씨를 보인 4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청원마을에서 '지리산 닥종이' 보존·계승자인 이상욱 씨가 4대째 전통 방식으로 닥종이를 만들고 있다.

광주지법, 11일 전두환씨 형사재판 준비에 '분주'

광주지방법원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재판에 대한 내부 행정지원 계획을 마련, 이를 토대로 이날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 앞에 별도의 보안검색대와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예행연습을 했다.

이어 법정 내부를 점검하고 재판 당일 보안인력 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필요시 경찰력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법정동 건물 입구에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원은 향후 법정 출입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나 불법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

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8일에는 전 씨 재판에 대한 방청권을 추첨·배부한다.

재판장(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1월7일 열린 재판에서 전 씨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는 꼭(전 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재판에 전 씨의 출석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재판장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3월 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정을 발부했다. 영

장의 효력 기간은 오는 3월11일 까지이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시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주춘정 기자

해외서 여성 감금·폭행 등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여성 지인을 감금,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사인을 유호한 혐의(특수상해·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부터 같은날 오후 6시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자신의 집에서 B(28·여)씨의 머리를 의자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B씨의 가족에게 전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호감이 있었으며,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귀국 의사를 밝히자 격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돈을 많이 벌었다. 말레이시아에 놀러오면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 관광 목적으로 찾아온 B씨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여학 공부를 핑계로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직후 B씨는 A씨가 잡은 사이 달아나,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귀국했다.

신고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국통보를 했지만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입국을 거부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의 여권을 무효화했으며, 잠복수사 끝에 지난 2일 김해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지 병원에서 확보한 B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한 밭서 군 훈련용 추정 포탄 발견

광주 한 밭에서 녹슨 포탄이 발견됐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34분께 광산구 평동에서 한 농부가 도라지 밭을 갈던 중 녹이 슨 포탄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길이 67cm, 지름 9cm의 훈련용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수거해 군 당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군부대의 포탄 훈련 탄착 지점이 어등산 쪽에 있었다. 어등산 골프장 공사장에서 옮겨진 흙더미에서 불발탄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광주서 주차 차량 바퀴 잇단 훼손..경찰 수사

광주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바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20분 광산구 도산동 모 공인주차장 앞 이면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타이어 4개가 훼손돼 있는 것을 차주가 발견 신고했다.

비슷한 시각 도산동 한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서 화물차 타이어 4개와 보조바퀴 2개도 파손된 채 발견됐다.

차량 주인들은 경찰에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주차해뒀다.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택 기자

선주 속여 2000만원 가로챈 30대 송치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인천)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제주 한림선적 유치방 어선 S호(29t)와 M호(49t) 선주들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총 19차례의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을 구하기 힘든 선박 소유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생침해사범인 선원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